

호텔들과 전주형 마이스 산업 육성

전주시, 지역 대표 호텔들과 중·소규모 학회 유치 나서

전주시가 마이스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전주지역 대표 호텔들과 함께 중·소규모 학회 유치를 나섰다.

시는 24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위치한 한국과학기술관에서 입주 학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중·소규모 학회 유치를 위한 민·관 공동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국내 이공계 학술대회 및 과학기술 단체를 회원으로 보유하고 있는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운영하는 한국과학기술회관에는 현재 100여개 학회가 입주해있다.

이날 설명회에는 전주시와 전라북도, 그랜드힐스톤·로니관호텔·엔브릿지호텔·라마다호텔·왕의지빌호텔·JS호텔 등 전주지역 6개 호텔

이 함께 참여해 학회 유치를 위한 열띤 홍보 활동을 펼쳤다.

특히 시는 이번 설명회에서 전주의 매력적인 관광자원은 물론, 그 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마이스도시 전주를 부각시키기 위해 국립무형유산원, 한국전통문화전당, 한국소리문화전당 등 전주만의 특별한 회의 장소와 인센티브 지원정책 등을 안내했다.

참여 호텔들도 별도의 상담테이블을 운영해 호텔을 홍보하고, 1:1 맞춤형 상담과 학회 유치활동을 전개했다.

시는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매년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정기적인 설명회를 개최하고 교류행사 여는 등 학회 유치를 위한 활동을 지속 펼쳐 나갈 계획이다.

또 전주시 마이스 기반시설에 대하여 견학을 원하는 학회에 대해서는 사전답사(캠퍼 투어)를 지원 하는 등 학회 유치를 위한 노력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송효철 기자

실직자·구직자 대상 맞춤형 복지상담 실시

덕진구, 고용복지+센터서 찾아가는 복지 상담실 운영

전주시 덕진구청장은 24일 전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7층에서 찾아가는 복지이동 상담실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번 복지상담은 지난 구인구직 행사인 '2019 전주고용복지플러스 만남의 날'에 참여한 실직자 및 저임금 구직자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찾아가는 복지이동 상담실'은 덕진구 생활복지과 복지상담팀이 평소 복지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있어도 공시 내방을 어려워하는 주민들과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에게 분기별로 1회 이상 복지관, 영구입대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으로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상담이다.

이날 구청은 각종 요금감면제도, 주거복지사업 및 취약채무자 특별감면사업 등 다양한 사회복지제도를 홍보해 참여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김종영 덕진구청장은 "앞으로도 찾아가는 복지이동상담실을 내실있게 운영함으로써 복지취약계층을 수시로 발굴하고 관리해 복지사각지대를 지속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제과제빵 만들기 재능봉사활동

사단법인 전주시자원봉사센터는 24일 행복나눔미용사단과 전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주 여성들과 함께 전주시자원봉사센터 사랑나눔터에서 제과제빵 만들기 재능봉사활동을 펼쳤다.

국비 확보로 전주시내 수돗물 더 깨끗해진다

시, 노후 상수관로 정비 등 상수도 개량 위한 3개 사업 국·도비 406억원 확보

2024년까지 총 605억원 투입해 깨끗한 수돗물 공급 위한 3개 사업 추진키로

전주시가 노후화된 상수도 개량과 물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국비를 추가 확보해 앞으로 전주시민들에게는 더욱 맑고 깨끗한 수돗물이 공급된다.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는 올해 환경부가 시행하는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의 노후 상수관로 정비사업 등 총 3개 사업에 선정돼 올 하반기부터 2024년까지 국·도비 예산 406억원을 포함한 총 605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먼저 시는 올 하반기부터 총 사업비 9억5,700만원(국비 70%, 시비 30%)을 투입, 전주시 전역에 분포된 노후 상수관로 상태를 점검·조사하는 노후 상수관로 현황 및 정밀조사 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후 내년부터는 총 156억원(국비 70%, 시비 30%)을 투입해 전북지역

최초로 수돗물 공급 전과정을 실시간 감시하고 예측할 수 있는 스마트 물관리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스마트 물관리 유지관리 시스템이 도입되면 사고예방체계가 구축돼 적수사태 등 수돗물 관련 사고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사고 발생 시에도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특히 시는 내년부터 오는 2024년까지 5년간 총 사업비 484억원(국·도비 60%, 시비 40%)을 투입하는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통해 미정비된 상수도관 60개블록의 노후 상수관로 275km 구간을 전면 개량·정비키로 했다.

시는 전주시 상수도 전반의 체질을 개선하는 3개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에 구축된 블록시스템 구축사업과 연계해 현재 67.8%인 미개선 지역의 유수율(정수장에서 생산된

수돗물이 가정에 공급되는 비율)이 85%까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아가, 잦은 상수도관 보수로 인한 급수 중단과 적수피해 사례가 줄어들고, 수도누수 감소로 절감된 지방상수도 유지 관리 비용과 수돗물 생산 비용이 시설 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구축될 것으로 내다 보고 있다.

오길중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장은 "시민 모두가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먹을 수 있는 물 복지 실현을 위해 각별히 관심을 갖고 노력한 결과 국비 확보로 결실을 맺게 됐다"면서 "노후 상수도관 전면 정비를 통한 맑은물 공급으로 전주시민들의 생활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조용식 전북경찰청장

남원경찰서 찾아 주민설명회

조용식 전북지방경찰청장은 24일 남원경찰서(서장 함헌배)를 초도 방문해 전북경찰의 4대 핵심가치인 정성(精誠)·정의(正義)·정감(精感)·정진(精進) 등의 치안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조 청장은 협력 단체장들과의 접견에서 평소 협력치안에 적극 협조해 주신 점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안전한 남원지역 치안을 위해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이어, 경찰서 4층 민원홀에서는 지·파출소장 및 협력단체장을 비롯한 각 마을주민 등 약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체치안 활성화를 위한 주민설명회 시간을 가졌다.

특히, 사회적 약자를 향한 따뜻한 관심과 배려를 통해 인권의 사각지대 해소함을 강조하였으며, 남원 노인복지시설 경애원을 방문해 근무자들의 노고를 격려했으며, 경찰·군인·민간인 7285명이 봉안되어 있는 지리산 충혼탑을 방문하여 참배를 올렸다.

한편, 조용식 청장은 "주민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정성을 다하는 남원경찰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조국 법무부장관, 검사들에 이메일... "검찰 개혁, 직접 듣겠다"

법무부, 홈페이지 통해 '검찰 개혁 국민 제안' 접수

조국(64) 법무부 장관이 "검찰 개혁에 대한 생각, 업무와 관련된 고민과 애로사항을 직접 듣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일선 검사 및 직원 등 검찰 구성원들에게 직접 이메일을 보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장관은 이날 오전 '검찰 구성원들의 의견을 듣습니다'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검찰 구성원들에게 보냈다.

조 장관은 앞서 지난 20일 의정부 지검을 방문, 첫 '검사와의 대화' 자리를 가진 것을 언급하며 "검사들과 직원들을 만나 솔직하고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여러분들을 직접 만나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계속 들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전국 검사와 검찰 직원들로부터 검찰 조직 문화 및 근무 평가 제도 개선, 검찰 업무 고충 등과 관련한 의견을 장관 명의 이메일로 받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조 장관은 "평소 생각하는 검찰 제도 개선 방안이나 애로사항 등에 대해 이메일로 편안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정책과 검찰 개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견을 주신 분의 이메일 주소는 업무 담당자 외에는 볼 수 없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모두 삭제돼 비실명 처리된다"고도 설명했다. /뉴시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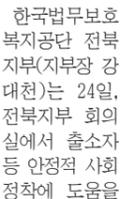
그러면서 "바쁜 업무 중에 또 다른 고민을 보태는 것은 아닌지 걱정도 되지만, 여러분께서 제안해 주신 의견이 국민을 위한 검찰 개혁에 밑거름이 될 것이라는 점을 약속드립니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부는 법무·검찰 개혁에 관한 국민의 의견을 받기 위해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간을 마련, 제안을 접수한다.

국민 누구나 법무부 홈페이지 '열린 장관실'에 신설된 '국민 제안' 공간에 접속해서 다양한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 접수된 국민 제안은 조 장관 발족될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안전으로 건의,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뉴시스

"지역사회 범죄예방 위한 활동 펼칠 것"

법무보호복지공단 전북지부 초대 이덕현 회장 선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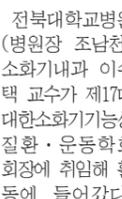
주거지원대상자, 숙식제공대상자 등을 위해 매 명절 생활관 위문품 지원, 주거지원대상자 격려금 지원 등을 해왔다.

또한 이번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법무보호사업비 500만원을 전달했으며, 앞으로도 아름다운 동행 합동결혼식 지원, 법무보호복지의 날을 위해 관심과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이날 이덕현 회장은 인사말에서 "전북지부협의회 초대 회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앞으로 지역사회 범죄예방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자원봉사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법무보호위원들과 힘을 합쳐 제도 정비, 조직 정비, 재원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였으며, 각 지방별 회장단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김윤상 기자

"소화기 기능성 질환 학술교류 선도"

이수택 신임 소화기기능성질환·운동학회장 취임



스가 많아지면서 각종 소화기 기능성 질환이 늘고 있고 이로 인해 삶의 질을 저해받고 있는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소화기 기능성 질환 및 운동질환에 관한 최고 수준의 학술교류와 연구를 선도해 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이끌고 국민보건에 이바지할 수 있는 학회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수택 회장은 전북대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전북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해 동대학에서 석사, 전남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미국 로체스터대학 이차 고든센터에서 연수했다. 대한소화기암학회,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등을 역임하는 등 소화기 분야의 활발한 연구 및 학회 활동을 하고 있다. /김윤상 기자



캠코와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24일 아호학교 덕진티움공간에서 김승수 전주시장에게 도서지원금 200만원을 기탁했다.

덕진티움공간에 북카페 들어서

전주시, 아호학교 덕진티움공간에서 북카페 개소식

캠코·초록우산어린이재단, 도서지원금 200만원 기탁

전주시 아호학교 청소년들의 전용 활동공간인 덕진티움공간에 북카페가 생겼다.

아호학교는 전주시가 청소년들이 자신이 하고 싶은 것에 대해 생각하고 스스로 행복한 삶의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운영중인 전주형 창의교육모델이다.

전주시는 24일 아호학교 덕진티움공간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전한석 한국자산관리공사 전북본부장, 문정훈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전북본부장, 지역 주민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호학교 북카페 개소식 및 도서 기증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돕는 '아호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전주시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북지역본부(이하 캠코), 초

록우산어린이재단과 함께 지역 사회의 아동·청소년들의 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교육 모델 발굴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기획됐다.

캠코와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이 자리에서 북카페에 비치돼 청소년의 성장을 돕게 될 도서지원금 200만원을 기탁했다.

이곳에서는 향후 △청소년 진로 멘토링 △금융상식 교육 △독서토론 등 지역 주민과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12월 캠코 전북본부와 사회가치 실현을 위해 무상으로 제공한 공간을 활용해 아동·청소년 전용 활동공간인 아호학교 덕진티움공간을 조성한 바 있다. /송효철 기자